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약의 기초

롬 4:1~12

두 종류의 구원

두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노총각이나 노처녀가 혼인을 하게 될 때 구원을 해 준 것처럼 생각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입시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붙어서 마치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다던가 혹은 죽을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허무와 좌절감 속에서 방황하다가 빛을 보고 구원의 느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학적 구원, 철학적, 종교적 구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노력하거나 기다려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어찌 보면 우연히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사는 동안에 얻어지는 구원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이 종류에 속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구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로서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존재와 죽음 이후의 세계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도 모르는 데 죽은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방관적이거나 도피적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무관심하고 도피한다고 방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현실인 것입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구원이나 상대적인 구원이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안개와 같은 것들이고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구원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구원이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상대적이며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구원이란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이란 영원하시고 절대자이신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의 필수적 조건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상대적이고 유한한 인간에게는 절대적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철학적 노력으로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만이 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 구원의 시작

이러한 구원의 내용은 구약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롬 4장 1~2절에 그 시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구약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지주가 됩니다. 그런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에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모든 이슬람권에게도 이 아브라함은 중요합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 50장의 수많은 기사는 하나로 집중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이 로마서를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구원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곧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가는 바로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할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온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셨습니까? 모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가? 은혜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잘 났거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이 시작이고 창세기의 전부입니다. 결코 아브라함이 쓸만한 재목이라거나 믿음이 있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왜 선택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는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특권을 받게 되었는가? 그가 노력해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는 실수투성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자식이 잘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인격도 바르고 매사에 지혜로우면 그 부모의 기쁨은 얼마나 큼니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대답이 없습니다. 자식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부모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횡포를 부립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 12:2, 3을 보면 다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을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뿐입니다. 왜 자녀에게 유산을 남

겨 줍니까? 자녀를 왜 조건 없이 사랑합니까?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세상의 부모가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부모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초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네 이름은 창대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다 저주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복 받기에 훌륭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악인에게는 벌이, 선인에게는 상이 주어지는 논리가 통용됩니다. 거기서 살아 나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국민 다 못 살아남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노력을 하고 충성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시작이란 감격과 황송함과 죄송함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

아브라함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입고 축복과 약속을 받게 된 이유는 오직 한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 믿은 것입니다. 무슨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흡족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면 너무나 고맙고 좋은 것입니다. 알아만 줘도 그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고 신뢰해 주었고 그것을 따라 주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안 믿은 사람은 다 죽고 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고 얼토당토 하지 않은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떨습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구약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어 준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의 뿌리요, 동기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은 것입니다. 믿고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의가 되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목마르고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점과는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오래 다녔다는 점을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전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당황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했던 어떤 행위, 전통, 경험 같은 것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뢰한 것이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나 내가 만들었던 것들을 신뢰하고 그것이 내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불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허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허구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라는 건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헌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헌금으로 2천명 선교사도 보내고 1만명 사역자를 배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헌금으로 집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 헌금을 했는데 액수가 미달되면 불안합니다. 그 헌금 액수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알아 온 성도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수적인 것을 신뢰하고도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구원관과 그릇된 생각을 갖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기자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신앙의 힘으로 얻어진 부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이나 내가 행한 것, 성취한 것, 소유한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멋있어도 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의가 됩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한 일이 공짜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 안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 한 사람처럼 대가를 주었다면 그것은 공짜입니다. 은혜입니다. 일 안했는데 똑같이 월급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마음 한구석이 찝찝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찝찝합니다. 잘 이해가 안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보상 심리가 잘못되면 율법이 됩니다. 이것이 비밀인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내가 월급을 받고 삯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인데 노력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황당한 것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같은 죄인을 그냥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설명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두번째 근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 합니다. 6~8절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그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

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가려진 사람입니다. 남의 죄는 들켰으면 좋겠고 나의 죄는 감추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남의 죄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 드러났으면 좋겠고 자신의 죄는 다 감추어져야 합니다.

다윗도 네 죄가 감추어지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춰내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상관하실 것입니다.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 주십시오. 쫓기든 사람이 누가 숨겨 줘서 간신히 살아날 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붉은 죄, 검은 죄를 다 덮어 주십니다. 우리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죄가 용서받고 가리움을 받는데서 옵니다.

행복의 조건

구원에 대한 구약에서의 3번째 말씀은 9~1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 혹 무할례자에게도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나 무할례 시나 할례 시가 아니라 무할례 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말한 죄가 가리워진 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뜻은 죄를 얼렁뚱땅 적당하게 무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구원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고 들추어지면 그 죄 자체로는 징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용서받고 치유받고 또한 화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할례가 행복의 조건인가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할례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에 행복의 기준이 있다고 사도 파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무할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는 말을 믿고 순종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를 명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무할례자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게 하신 후 그 뒤에 오는 사람들도 모두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믿음의 조상도 됩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 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그가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은 무할례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된 것입니다. 할례 때문 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나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신뢰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1백번을 옮겨 쓰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금식의 위험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기적의 위기는 기적을 베풀어주신 분은 생각하지 않고 기적 자체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참 무서운 비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하나님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결정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결단하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신앙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다윗, 할례 이 세 가지 기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깊고 예리하고 분명하게 그 정의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공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감당하기 어렵고 황당한 것입니다. 공짜로 얻었지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구원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묘한 구원,
감당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구약의 기초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몇 시간 정도 듣고 끝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샘물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